

교회 목표

신앙의 애매  
친구인양 인식  
민족복음화  
세계 선교  
이웃 사랑

# 주간충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사탄 1:16)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빌립보서 1:21)

발행처: 강원도 춘천교회서술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5-1 ☎ 552-8200

THE WEEKLY CHOONG HYUN

발행인: 김성관 편집인: 노광현 편집국장: 조진근

## 2000년도 제1회 학습세례식

바르게 심긴 나무처럼 든든히 세워지길  
13일과 20일에 교육받아야  
2월 27일 찬양예배서 거행

2000년도 첫 학습세례식이 2월 27일 찬양예배시 본당에서 거행된다. 따라서 이 의미깊은 예식에 참여하게 되는 성도들은 마음을 새롭게 하여 교육을 잘 받으면서 준비해야 하였다. 사실 최근에는 각 지역 교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학습세례식 교육과정에 대하여는 목소리가 높다. 단기간에 형식적으로 치러지는 학습세례 교육의 내용과 정도가 성도의 마땅한 첫 출발을 위해서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우리 교회에서는 이를 보완하기 위한 대안들을 지속적으로 토론하면서 준비해 오고 있다. 보다 개선된 교육과정이 마련되기까지는 이 거룩한 예식에 참여하는 성도들 자신이 좀더 정결하게 준비되고 단단하게 훈련받을 수 있도록 성숙한 성도들의 많은 조언을 구하면서 준비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금번 교육일정은 아래와 같다.

| 2000년 제1회 학습세례식 안내 |                    |                   |                         |                   |             |                   |             |
|--------------------|--------------------|-------------------|-------------------------|-------------------|-------------|-------------------|-------------|
| 날짜                 | 시간                 | 학습자               | 장소                      | 세례자, 개종자, 입교자     | 장소          | 유아세례자             | 장소          |
| 2월 13일<br>(주일)     | 1교시<br>15:00~15:50 | 성경개요<br>(강원원 목사)  | 교육관<br>314호             | 교육관<br>(전행관 목사)   | 교육관<br>307호 |                   |             |
|                    | 2교시<br>16:00~16:50 | 기독교<br>(이승학 목사)   | 교육관<br>314호             | 세례관<br>(김병태 목사)   | 교육관<br>307호 |                   |             |
| 2월 20일<br>(주일)     | 1교시<br>15:00~15:50 | 기독교개요<br>(김인식 목사) | 교육관<br>301호             | ‘구원론’<br>(이종대 목사) | 교육관<br>307호 | 유아세례관<br>(김희주 목사) | 교육관<br>314호 |
|                    | 2교시<br>16:00~16:50 | 문답                | 교구별<br>장소               | 문답                | 교구별<br>장소   |                   |             |
| 2월 27일<br>(주일)     |                    | 찬양예배              | 성인 학습 세례식 (여년 찬양예배, 본당) |                   | 유아 세례식      | (오후 3시, 갈릴리움)     |             |

### 선교사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부서별 지원선교사 지정

선교위원회는 아래와 같이 각 부서별로 사랑의 기도와 긴밀한 교통 가운데 지원할 선교사 및 선교부를 지정하였다. 각 부서에서는 예배때마다 기도할 뿐 아니라 사랑의 편지 등을 통해 선교사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보내는 선교사'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어야 하였다.

| 선교사업           | 지원부서         | 선교사명      | 지원부서         |
|----------------|--------------|-----------|--------------|
| 이집트 이집트교신사     | 8교구/장년1부     | 단기종교신도신교사 | 2교구/중등1부/고등부 |
| 수리남 인적발신교사     | 7교구/장년2부     | 한진전 선교사   | 중등3부/장년2부    |
| 프랑스 김명대신교사     | 3교구/대학부/장년3부 | 수단 현지인선교사 | 장년1부/사망부     |
| 케냐 장로교회신사      | 6교구/장년2부     | 국         | 장년2부/영아부     |
| 필리핀 케냐 고은민     | 영아부/소망부      | 내         | 19교구/대학부     |
| 수단 김기영         | 유치부/탁아부      | 국         | 물품팀          |
| 이집트 알렉산드리아 하요셉 | 유아부/신혼가정부    | 내         | 스리랑카팀        |
| 선 일반유형서        | 유년부/예배1부     | 국         | 유즈베키스탄팀      |
| 뉴질랜드 김형선       | 초등부/가족부      | 국         | 인도팀          |
| 호주 이기성         | 소년부/영아부      | 국         | 중동팀          |
| 단기종교신도신교사      | 17교구/영아교육부   | 선         | 방글라데시팀       |
| 수리남            | 4교구/장년1부     | 교         | 파키스탄팀        |
| 오랑주 이수경,한정은    | 5교구/중등2부     | 부         | 인도네시아팀       |
| 유진대            |              |           |              |
| 황정희,이순주        |              |           |              |

## 2000년도 전반기 장학생

어제 논술 면접시험 치러, 2월 18-19일에 선교훈련

2000년도 전반기 장학생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논술 면접시험이 어제 있었다. 대학생이상 후보자들은 시험을 통해 자신의 실력과 말솜씨에 대한 이해를 다시 한번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들은 또한 2월 18일과 19일 양일에 걸쳐 훈련지도원에 있어 선교훈련을 받게 될 예정이며 중고등부는 20일(주일) 오후 4시에 교육관 407호에서 오리엔테이션을 받게 된다.

## 전도위원회

2000년도 놓여온 교회 지원  
경기·충청·강원 등 51개 교회에

전도위원회는 2000년도에도 놓여온 회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키로 하고 교구에서 지원하는 35개의 교회 및 고등부 지원 3개 교회, 대학부 지원 4개 교회, 청년1부 지원 6개 교회, 그리고 청년2부 지원 3개 교회 등 총 51개 회화를 확정하였다. 전도위원회는 이 놓여온 교회들을 대상으로 일정한 물질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여름과 겨울에 의료, 이 미용 등의 봉사활동 및 수련회 개최 등을 통한 복음전도사역도 지원하게 된다.

성도들은 해당지역 교회의 목회자들을 위하여, 그리고 그 교회가 해당지역에서 복음의 등불을 밝히는 아름다운 교회들로 든든히 세워질 수 있도록 깊은 관심속에서 중보의 기도도 힘써 지원해야 하였다.

## 단기선교 베트남팀 2월 14일 출발

단기선교 베트남팀(단장 김광남 장로, 지도 서광진 목사) 9명의 단원들이 2월 14일(월) 현지로 출발한다. 이들은 LMTC(광신도선교훈련원) 선교훈련생들로서 현지에 도착하는 대로 LAMP(언어습득)훈련 및 선교지 정탐, 선교비전 수립 및 선교전략계획 등의 활동을 벌일 예정이다. 이를 위해 현지인 가정교회 방문도 계획하고 있다.

베트남은 수십개의 소수민족으로 구성된 나라로 언어도 어렵고 특히 복음에 대하여 매우 배타적인 국가다. 따라서 베트남이아말로 장의적인 접근방식이 가장 절실하게 요구되는 국가 중 하나이다. 성도들은 이들의 건강과 더불어 이들이 성령의 인도 가운데 현지를 잘 정탐하고 선교비전 및 창의적인 선교전략들을 다양하게 발견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도 증보해야 하였다.

## 남녀전도부지회 영성훈련 2월 15일 오후7시, 갈릴리움

전도위원회 남녀전도부에서는 남녀전도회 지회 영성훈련을 2월 15일(화) 오후 7시에 갈릴리움에서 실시한다. 강사는 이종성 목사이며 참석대상은 각 지회의 회장, 부회장, 서기, 회계, 전도사, 전도원수, 성서연구원 등이다.

전도위원회에서는 이러한 영성훈련의 시간들을 통해서 모든 일꾼들이 전교인 대신 자 전도운동 및 교구별 집중전도, 총련전도대 사역에 열심히 참여하면서 지역 및 민족 복음화를 위한 헌신된 사역자들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당일 오후 6시부터는 만찬을 식사까지 제공한다.

## 감사위원회 생가지 정기발사

- 대상기간: 1999년도 결산 및 2000년도 1월분 시산표
- 대상기관: 각 위원회 산하 부서 및 북부기관(남자지 전도회 제외)
- 감사실시기간: 2월 ~ 3월중
- 감사실시장소: 선교관 404호

## 정기당회

16일(수) 20:10  
당회실

## 1 함께 생각하기

“지정주차구역은 피해 주세요”

지난 주 교회 이웃에 사는 분이 교회 사무국에 전화를 걸어 형의했다. 주일마다 버섯이 차량번호까지 적혀 있는 지정주차구역에 충전교회 교인들이 끊임없이 차를 대는 바람에 주차 지킴이 차는 주차할 수 없었다는 내용이었다. 오죽이나 주차할 공간이 없으면 그곳까지 이용했을까 하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부당한 행위로 인해 하나님의 교회가 욕을 먹는 것보다는 차라리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아니면 주차요금을 물더라도 합법적인 장소에 주차하는 것이 나은 것이다.

차량관리부에서는 제2교육관 지하주차장을 이용하라는 주지에는 큰 불편이 없을 것이라 고 조언한다. 지정주차구역에 다른 차를 주차시킬 경우 지정인이 고발하면 즉시 건인 조치된다고 한다. 따라서 충전교회 주일에 이웃 주민과 서로 언성을 높이는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훈련의 성도들은 조금이라도 더 수고를 감수하는 향기로운 모습을 보일 수 있어야 하였다.





김창민 목사

# 육체의 고난을 당할 때에

(벤전 4:1-11)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 1. 죄값으로 온 고통

사람마다 평안과 즐거움을 원하고 고통을 원치 않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르고 교만한 마음으로 죄를 범했다가 에덴동산에서 쫓겨난 이후로 그 죄를 따라서 고통과 고생이 끊이지 않습니다. 첫째, 욕심 때문에 고통이 생겼습니다. 돈에 대한 욕심이 나라에 대한 애국심을 잠아먹습니다. 돈에 대한 욕심으로 남의 생명을 업신여기고 밟아버리는 잔인한 마음이 생깁니다. 돈에 대한 욕심이 거짓말쟁이를 만듭니다. 남이간의 음란한 욕심으로 가정의 파과가 됩니다. 질서가 무너집니다. 명예를 원하는 욕심때문에 온갖 고통이 생깁니다. 둘째로는, 우리가 약해서 고통이 생깁니다. 결심했는데 유혹에 넘어갑니다. 몸이 든든한 줄 알았더니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깊은 병을 키우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 저것 인간적인 방법을 써보지만, 이것은 일시적인 것이고 최약으로 향하는 것일 뿐입니다. 셋째로, 나쁜 일 행한 것 때문에, 또 이리저리서만 고통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의로운 고통이 있습니다. 애국자가 감옥에 갇히는 고통이 바로 의로 인해 당하는 고통입니다. 예수님을 바로 믿는 성도가 신앙의 길을 지키다가 감옥에 갇히고 재산을 빼앗기고 매를 맞는 고통을 당합니다. 이러한 세상에는 억울한 고통이 참으로 많습니다.

## 2. 고통을 면하는 길

그런데 고통을 어떻게 하면 면할 수 있을까요?

“죄 집 말은 우리 구주 아저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모든 고통 고통한 사람 복 받네”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로 고통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인간 가운데는 죄 문제를 해결할 자가 없습니다. 제일이 온 고통의 원인이 죄인데 죄만 해결되면 어려움들을 면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인간의 힘으로는 죄를 모두서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해결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원망부터 합니다. 잘못을 행하기는 자기가 다 잘못을 저질러 놓고는 책임은 다른 사람에게 뒤집어씌웁니다. 그런데 원망평개가 고통을 해결합니다? 원망은 고통을 키우는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땅에는 조금만 어려운 일이 생기면 원망부터 터져나오니 고통이 면해지지 않으니 고통이 점점 커져만 갑니다. 걱정스럽습니다. 그리고 고통이 계속되면 원망은 저주로 바뀝니다. 원

망은 미움과 독한 마음을 생기게 하고 결국 저주로 옮겨갑니다. 그저 “우리 교회에, 우리나라에 아무개만 없으면 잘될 것 같은데 아무개 때문에 문제야” 이렇게 해서 자기가 책임을 안치고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지우다가 “저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합니다. 없었으면 좋겠다는 말은 죽기를 바라는 말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이처럼 저주를 하던 원망이 더 커지고 고통이 더 커질 뿐이지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고통을 면하려고 자살을 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고통이 해결됩니까? 땅 위의 고통 때문에 죽음을 택하지만 그 후에는 땅

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의 죄 때문에 대신 사형집행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피를 우리러보면서 “하나님 독생자 예수님의 피를 보시고 나를 용서해 주옵소서”라는 회개의 눈물을 흘리던 하나님이 지난날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예수님이 함께 동행해 주십니다. 나그네 길 가는 동안 한결같은 한결을 같이 가주십니다.

이렇게 되면 몸은 아직 괴로우나 마음의 괴로움이 없어집니다. 몸은 아직도 괴로우나 영혼의 기쁨이 옵니다. 영혼의 기쁨이 오고 마음의 평안이 오면 육신의 문제는 온혜 가운데 해결이 됩니다. 믿습니까? 어려움, 육신의 고통부

집니다. 먼저 구하면 믿음이 생깁니다. “먼저” 구하면 지혜가 생기고 믿음이 생길 때 하나님께서 마음의 평안과 물질의 축복도 내려 주십니다. 땅 위의 복을 구하는 것을 이단으로 아는 것은 잘못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하여 교훈하실 때에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땅에서의 복을 구하는 것은 잘못이 아닙니다. 다만 그 순서가 잘못되었다면 바로 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 3. 결론

우리는 잠깐 세상에 살다가 주님 부르신 것입니다. 이때 천국에 못 가면 저옥으로 가게 됩니다. 예수님이 땅 위에 오신 목적은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절대자이신 예수님, 통령조와 관건계 하시는 예수님께 기도하면 예수님께서 모든 고통을 해결해 주십니다. 인간의 방법은 지혜로운 듯하나 망할 구멍을 파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살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죽으면 천국 가고 인간의 방법을 쓰면 안됩니다. 그래서 고통을 면하는 방법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육신의 생활도 부지런히 일해야 합니다. 그래서 고통을 만났을 때에 낙심하거나 원망하거나 남에게 책임을 지우지 말고 절대로 남을 저주하지 맙시다. 오히려 축복해야 합니다.

“주님 믿는 사람은 예수님만 따라가야지 형편을 따라가면 안됩니다. 나그네 생활이 험하고 어려운 일 많아요. 큰 능의 예수님이 나와 같이 하시니 악마가 손을 못 댁니다.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땅에서 모든 복을 누리게 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어려움 만났을 때에 인간의 수단 방법을 쓰지 맙시다. 더 위대롭고 협해집니다. 하나님의 보호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면 그 사랑 안에서 아무도 손 못대는 복을 누리게 됩니다. 개인의 풍광은 고통입니다. 교회의 풍광은 고통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전진해라” 해 주시면 됩니다.

원망하지 맙시다. 저주하지 맙시다. 낙심하지 맙시다. 회개하고 예수님에게 매달립니다. 세상 끝날 때까지 괴로운 인생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 길을 완승 부르면서 갑니다. 그리하여 죽음 정거장까지 예수님과 동행하다가 죽음 정거장 내릴 때에 천국에서 만류란 받는 어려움이 되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

어려움 만났을 때에 인간의 수단 방법을 쓰지 맙시다

더 위대롭고 협해집니다

하나님의 보호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면 그 사랑 안에서

아무도 손 못대는 복을 누리게 됩니다

개인의 풍광 고통입니다. 교회의 풍광 고통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전진해라” 해 주시면 됩니다

위의 고통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지옥 불이 기다린다는 것을 모르는 어리석은 것이 바로 자살입니다. 이처럼 인간의 힘으로 고통을 면해보려고 발버둥을 치지만 고통을 만드는 것이 어리석은 인간입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고통을 면하는 길은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만 괴롭다”라는 마음을 버리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통을 당할 때에 자기만이 어려움을 당하는 것처럼 느끼는데 땅 위에 있는 사람치고 어려움 안 당해 본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님도 어려움을 당하셨습니다. 오히려 이와같이 나만 고통을 당한다는 생각은 원망을 낳게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고통을 당할 때에, 아담과 하와와 죄값으로 인간에 다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음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죄로 인한 고통을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사람의 몸을 쓰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구원이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고통 해결이라는 말입니다. 땅 위의 고통 해결, 죽음 이후 지옥 불의 고통 해결을 위해 구원자이신 예

터 해결하려고 죄를 범하면 지옥 불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지옥 불 가기 전에 땅 위에서 더 고통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나만 이 고통을 당한다” 하는 좁스러운 생각을 버리고 “아무개 때문에 고통이 있다” 하는 그런 마음도 접어치우고 “나 잘못 때문에 고통이 온 게 아닐까? 회개하자. 아무개 잘못 때문에 고통이 왔으면 그분이지”의 죄를 깨닫고 회개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해야지” 하면서 참보하는 기도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를 드릴 때에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육신이 건강도 주시고 젊음이 고통을 당하던 억울한 일도 축복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땅에서 고통 10년, 20년, 30년 겪었는데 천국에서는 의의 면류관을 받고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됩니다. 또 하늘나라에 가기 전에 또 땅 위의 고통을 통해서 훈련을 받고 지혜를 얻은 사람에야 땅 위의 복도 채워 주십니다. 믿습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땅의 것을 먼저 구하면 욕심이 생깁니다. 땅의 것을 먼저 구하면 거짓말쟁이가 됩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면 지혜로우





김성관 목사

## 작은 보금자리

(시편 84:3)

"나의 와,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 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 다윗의 소원

다윗은 도망쳐 다니면서 매우 어려운 삶을 살았습다. 그는 그의 이웃들과 자신이 살던 곳으로부터 격리되어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의 적들은 그를 둘러쌌습니다. 그는 셋지도 못하고 도피하는 부주한 생활 속에서 그 물결이 행편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가운데서 그는 하나님의 집 근처에 머무르기를 열망하였습니다. 다윗은 새들이 하나님의 성전치마와 지붕 밑에 작은 집을 짓고 사는 것을 무척이나 부러워하였습니다. 그의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열망은 그의 노래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 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3절). 다윗의 마음은 너무나도 겸손하였고 감사에 차있었습니다. 그는 그의 가장 어려웠던 시절에도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여러분께 이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에게 있는 내적 평안과 축복을 찾아야 합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은 그들이 입을 옷과 먹을 것이 없어도 불구하고 소리를 지르며 그들이 처한 상황에 발을 동동 구르며 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문제로 인하여 평화를 잃어 놓았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인 혼란 상태에서 믿음의 교제권을 버린 채 더더욱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강박하게 됩니다. 성전에 있던 이 작은 새들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발견한 이러한 진리를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 성전에 깃든 새들

이 새들이 자신의 집을 하나님의 성전주위에 얻었다는 것이 놀랍지 않습니까? 다윗은 바로 이러한 신기한 현상에 기쁨으로 집중했습니다. 그것들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참새와 제비, 동전 두배에 팔리고 살 수 있는 가치없는 것들입니다. 또한 동지와 음식이 필요한 마름들이기도 합니다. 그것들이 평화를 합니까? 오히려 하루종일 기쁨으로 노래하고 소리를 냅니다. 바로 이것이야말로 아름다운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물, 전기, 그리고 추운 날씨 등으로 어려움을 겪습니다. 2000년대를 사는 인인이 어찌 이렇게 우둔합니까? 어째서 기차나 비행기 등을 하늘에서 떨어지며 문제를 일으킬까? 어째서 전제해 많은 사람들은 자신들이 어떤 특정한 것을 가지지 못했다고 불평하며 불만을 갖고 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이나 어떻게 사용하고 계시지 않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성전 주위에는 온통 초대 받지 못한 자들이 있습니다. 오늘날의 교회 안에도 초대 받지 않은 자들이 있습니다. 성전은 그런 자들을 필요로 하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성전 안에 그러한 자들이 없는 것이 나올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미물들 중에 하나님 내어 쫓아냄을 당하는 일은 없었습니다.

### 가장 좋은 보금자리

이 새들이 어떤 일들을 했습니까? 그것들은 평안하고 적절하며 영구히 머무를 수 있는 곳을 택했습니다. 어떤 형태의 보금자리 이런 간에 그 새들은 자신들에게 맞도록 고쳤습니다. 두말할 것이 없이 이 새들에게는 알맞은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평안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죄를 자백하고 한마리의 참새와 같이  
겸손해 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에 나오시면  
안전과 쉼, 기쁨, 교제,  
그리고 하나님과의 화목을 누리실 수 있습니다

다. 그들은 안전과 안식, 교제, 기쁨, 그리고 친목을 이곳에서 즐길 수 있었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성도의 교제 안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특권을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집에 기쁨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기쁨 안에 머무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즐거움을 가지고 노래와 찬양을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형제 자매들과 우애함을 가지고 교제할 수 있습니다. 우리안에 모든 구세원들이 다 친숙한 것은 아닙니다. 까마귀는 공격적입니다. 독수리는 사악합니다. 카마우저만 새는 욕심이 많습다. 매는 전부성이 강합니다. 타조는 너무 격합니다. 닭은 인간에게 너무 의존합니다. 그리고 부엉이는 너무 어두움을 사랑합니다. 반면, 이 참새와 제비는 작고 귀엽습니다. 얼마나 아름답고 귀엽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너무 야심이 큽니다. 우리들은 명성이나, 격위, 학위, 그리고 영광을 사랑합니다. 우리들은 우리의 집을 가장 발달된 전자장치로

꾸미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무슨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소리치려고 떠들고 적대적 감정으로 둘러 쌓여있습니다. 우리들은 과연 어디까지 왔습니까?

### 자녀들을 위한 보금자리

이 새들은 어린새끼를 위한 보금자리를 찾았습니다. 왜냐구요? 그들은 활동적이고 적극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 보금자리는 어린 새끼들을 위해 마련한 특별한 곳입니다. 여기에서 새들은 그 새끼들이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집안에서 자라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여러분의 자녀들의 보

들은 예수님의 친구들과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제비들이 그들의 보금자리에 되돌아 오듯이 우리들의 자녀들도 하나님의 집에 되돌아 올 것이라는 믿음 안에서 깨어있기를 기도드립니다.

### 영원토록 안전한 곳으로

예수님께 나오는 자녀들은 이러한 면에서 볼 때 참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녀들은 하나님의 궁전에 거하기 때문에 부유합니다. 이러한 자녀들은 하나님의 성전에 거하기 때문에 자식들이 많습다. 이들은 시간이나 영원으로부터 안전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은 여러분의 신앙모범을 따라야 합니다. 그들은 당신의 모범을 따라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와야 합니다. 예를들어, 당신의 기도와 가르침으로 당신의 신앙의 모범을 따를 것입니다. 혼란과 성실한 보살핌이 없는 우리의 자녀들은 신앙을 좋아하게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께 여쭙보겠습니다. 행여라도 여러분은 자녀들 때문에 예수님을 슬프게 하고 계십니까? 주님없이 만족하시고 있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은 자녀들을 제대로 돌보고 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자신과 자손들을 위하여 여러분의 가정에 예수님을 모시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여러분, 당신의 가족 모두가 한곳에서 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까지 쉬지 마시기 바랍니다.

### 성전에 거할 겸비한 자

여러분께서 모두들 "나는 단지 작은 참새, 천하고 보잘것없는, 그러나 사랑의 주님께서는 나를 귀하게 여기시네"라고 찬양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이 간증과 같이 낮아지실 수 있습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궁전에 거처하고 있습니까? 왜 경경합니까? 겸손해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에 나오시면 안전과 쉼, 기쁨, 교제, 그리고 하나님과의 화목을 누리실 수 있습니다.

찬송가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생각하십시오. 우리들의 하나님, 왕신 하나님은 모든 어려움은 결코 경경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고 계십니다. 아멘. ■

금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얼마나 자주 우리들은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집에 거하도록 하기보다 피아노 레슨, 축구교실, 테니스, 노래 합창단, 또는 과외공부나 학원에 보내고자 힘쓰고 있습니까? 여러분 자녀가 하나님의 전에 있어야 안전하고 참 자유를 느낄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제비는 자유의 새로 하나님의 세단 앞에서 집을 찾음에 만족하였습니다. 제비는 그 자신이나 새끼들이 여기에 붙잡혀있고 불안해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도 당신의 자녀들이 하나님과 그의 거룩한 예배 안에서 기쁨과 행복을 누리도록 인도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들은 예배가 따른다고 지껄고도 해서는 안되겠습니까. 오히려 기쁘고 멋지게 만들어야 하겠습니까. 그리고 자녀들을 하나님의 집에 가까이 데려오는 것이야말로 그들의 참 행복으로 가까이 데려다 주는 것임을 알아야 하겠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교회 안에 있을 때 그들은 선택된 자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



## 국내외국인선교부 수련회 아버지께서 기쁘게 받으신 시간들

### 국내 외국인

선교부는 지난 구정 4일부터 6일까지 2박3일간 '예수의 흔적을 체험하라'는 주제 아래 겨울수련회를 개최하였다. 설인대도 불구하고 40여명의 교사와 100여명의 외국인들이 아멘홀에서 모임을 가졌다.

첫째날은 복지관에서 사위하는 것을 시작으로 프로그램이 진행되었는데, 레크리에이션을 통해 8개국 나라간에 교제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으며, '힘을 써봐요' 시간에는 나라별로 즐겨하는 스포츠를 하였다. 저녁식사는 한국의 별미중의 하나인 비빔밥을 먹으며 한국을 식을 맛보는 시간을 가졌다. 수련회의 하이라이트인 부흥회 시간에는 찬양특순과 특별회 목사의 말씀이 이어졌다. 특별회 찬양특순 시간에는 김희숙 집사의 러시아어 특강으로 인해 우즈베키스탄 외국인들의 환호와 큰 박수를 받았으며, 이경재 집사 가족의 작은 오케스트라는 외국인들뿐만 아니라 교사들에게도 은혜의 시간이었다.

교회에서 하루를 보낸 외국인들은 아침예배를 시작으로 둘째날을 시작하였다. '성경을 알아보자' 시간에는 눈높이 성경퀴즈를 하였는데 예상외로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고, 성경을 알리고 예스는 모습에 아멘했다. 설을 맞이하여 특별히 마련된 프로그램 중 하나인 한복입기 시간엔 한복을 입고 세배를 하며, 각 나라를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한복을 입고 즐거워하는 외국인들의 모습이 산문받은 아이들 같았다.

직장에서의 고된 업무로 쉬고 싶을텐데도 불구하고 겨울 수련회에 참가한 그들의 모습이 이전의 받으려고만 했던 행동에서 좀더 열린 마음과 성경을 배우려고 예스는 모습으로 변화된 일면을 볼 수 있었고, 운전으로 봉사하신 교사들과 식당에서 이름도 없이 아침,점심,저녁을 사수하고하신 부감 컨사님을 비롯하여 봉사한 교사들의 모습도 하나하나서 기뻐 받으셨으리라 확신한다.

(최은아 기자)

## 베트남 출발보고 을 겨울 단기선교의 마지막 주자

### 이런 겨울 단기선교의 마지막 팀인 베트남 팀은

LMTC(평신도 선교 훈련과정)를 수료하였거나 이수중인 팀원들로 전원이 잘 훈련되어 있으며, 이달 14일에 출발하여 24일에 귀국할 예정이다. 베트남은 현재 얼마 남지 않은 공산권에서 속하여 복음전도가 법적으로 금지된 나라이다. 금번 단기선교는 초행길이고 사회주의 감시체제에 따라서는 어려움이 예상되나 선교지 정탐을 비롯하여 캠프(언어학술훈련) 및 문화적응 훈련을 위해 현지인 집에서 민박할 계획이며, 특별히 현지자정교회를 탐방하여 생생한 현장감을 체험하고 대원들 개개인의 세밀한 기록을 통해 차기 계획 및 프로그램에 유익한 자료를 남기게 될 것이다.

베트남은 한국인과 생김새가 아주 비슷하여 말하지 않으면 잘 구별되지 않

는다고 한다. 그들의 언어는 베트남어, 복어 및 영어를 공용어로 사용하며 부족수는 수십 개에 달한다. 또한 현지인들이 상용하는 베트남어는 북부고산지대, 중부와 남부 방언이 있으며 성조가 여섯개가 되어 발음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한다.

이번 베트남팀의 행선지는 남부에 있는 호치민시를 기점으로 한다. 팀원들은 주중 4일씩 모임을 갖고 남부 방언을 배우며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날씨에는 한국의 초가를 날씨를 되며 풍토병은 없으나 모기가 많다. 위생 및 공공질서는 무관하고 치안력이 미약하여 특히 도둑을 조심해야 한다고 한다.

위험한 곳인 만큼 성도들의 힘찬 기도 후원이 필요한 사역이다. 아나 자손과 같은 공산정권이 버티고 있지만 팀원들의 지혜롭고 담대한 활동은 기록한 정탐여행 보고서를 기대하는 바이다.

(김성진 기자)

## 인도 단기 선교 보고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안고

황은혜(청년부)

1월 팀원인 두명 2일까지 13월14일의 일정으로 13명의 팀원이 인도를 다녀왔습니다. 한국에 돌아온 지 오늘로 꼭 1 주일이 되는데 2주의 짧은 인도 생활이, 인도의 친구들이 많이 그리워합니다.

20일 밤 델리에 도착하였는데, 그 동안 인도의 일약한 환경에 대해 막대한 걱정 때문이었는지 첫발을 내딛은 델리의 공기와 향기는 생각보다 좋았다는 것입니다. 다음날 우리 사역지가 될 찬디갈을 향해 5시간 정도 버스로 이동을 했는데, 가는 중간중간 빨간 깃발이 꽂혀 있는 힌두교 사원과 오렌지색 깃발이 꽂혀 있는 시크교 사원을 볼 수 있었습니다. 깃발 지킴을 먹으러 식당에 가는 인도와 영혼을 조금 엮어보게 되었습니다. 추운 밤공기에 거적을 덮고 길거리에서 자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신발도 없이 구걸을 하러 다니는 길거리에 놓여있는 예닐곱의 아이들을 그 길에 만났습니다. 가난한 나라 인도, 하나님을 물라서 더욱 행복한 인도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팀에는 예전에 외신부에 출석하였던 현지인 두 친구가 동참하여 도왔는데, 총 15명이 3명으로 나누어 대학교에 가서 만나는 대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캠퍼스 사역에서 만난 대부분의 대학생들은 힌두교인이었는데, 힌두교 특성상 학생들은 하나님께 이르는 유일한 길이 되시는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예수님을 믿은 신자로서 주기를 한 분 하나님을 인식하며, 많은 신교의 하나로 예수님을 받아들였습니다. 모든 것을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자세, 그것이 인도인들의 기본 자세이며 신앙이었습니다. 그들에게 기독교는 타교로 간주하지 못하는 종교로 인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한 일은 5일간의 지속적인 대학 전도회를 통하여 만난 일곱 학생들이 우리 예배에 함께 참여하여 복음을 듣고, 우리 수소에 찾아와 지속적으로 교제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인도 땅에도 귀한바람이어서 지금은 간절하게 여기는 복음이 인도 학생들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28일, 29일 양일간에는 외신부에 출석하는 8명의 형제들의 집을 심방하고, 3명의 집에서 민박을 하였습니다. 이런 아침에 찬디갈을 출발하여 밤 12시가 넘어 숙소에서 돌아오는 바쁜 일정이었지만, 그러한 아들들의 소식을 전해주고 대부분이 힌두교며, 시크교인 그들의 가정에서 복음을 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서 매우 기뻐했습니다. 인도에서 복음을 듣고 기독교인 된다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기에 한국에 나와 있는 인도인 형제들을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잘 돌보고, 성경을 바로 가르치며 참된 기독교인으로 세우기는 일이 이후의 그들의 가정을 복음화하는 씨앗이 될 것을 생각할 때, 외신부의 형제들과 사역이 더욱더 귀함을 깨달았습니다.

비록 2주의 짧은 사역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인도의 영혼들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전에 우리도 예수님을 모르고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많은 선교사님들의 사랑을 통해 이제 주님 믿고 우리도 그 주 되심을 고백합니다. 인도의 많은 사람들이 지금은 복음을 어리석은 것임으로 여기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실 그 때 인도의 많은 형제, 자매들이 함께 하나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 지속적인 기도과 실제적인 돌아봄과 수고와 필요합니다. 이 일을 우리 인도 사역팀과 중원교회가 함께 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 수리남 단기 선교 보고서 빛나는 그들의 눈동자들

정성진(청년부)

15일 이승수 목사와 김의철 장로를 비롯한 8명의 단기교 단원들은 수리남을 향해 길을 떠나 16일(현지 시간) 오후에 도착한 선교사들에게 도착했다. 이후 성경학교를 마다 교회에서 3일, 팔레도르바 교회에서 1일, 레보르마시 교회에서 1일, 그리고 베르산교 교회에서 3일을 계획했다. 본 팀의 주요 사역으로는 어린이 성경학교, 미용 및 이발, 축호전도 사역을 들 수 있다.

성경학교는 찬양, 말씀, 마미, 인형극 등으로 구성되었는데, 찬양은 율동을 포함한 영어와 네덜란드어 찬양, 말씀은 한국어와 영어를 준비해서 다시 네덜란드어로 통역하는 형태, 마미는 "펠즈", 그리고 인형극은 '부자와 나사르'와 '돌아온 땅'로 세분되었다. 미용 및 이발 사역은 1명의 전문 헤어 디자이너와 1명의 보조 헤어 디자이너, 그리고 1명 정도의 보조자로 구성되어 1일 평균 50~60명 정도의 사람들에게 염색, 컷트, 파마를 실행했으며 축호전도는 주로 오전에 이루어졌는데, 2~3개조로 나누어 현지인과 함께 교회를 중심으로 행해졌다. 축호전도는 하면서 느낀 것 중에 한가지는 이들은 네덜란드보다 인도인들의 방언인 '파카파카'어를 더 좋아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우리 '안녕하세요?'라는 말을 그들의 방언인 '파카파카'어로 '하유멍'이라고 말해주면 반응이 훨씬 좋다는 것이다.

수리남 인도인들과 차별한 후 잊을 수 없는 것 중에 한가지는 어린아이들의 눈빛이었다. 까만 피부에 까만 쌍꺼풀 밑으로 바라보는 반박반과 빛나는 눈동자는 복음을 갈망하는 열망, 바로 그것이었다.



## 가장 귀한 선물

## 초신자를 위한 신앙강좌

## 구원이란 무엇일까요?

새로운 세계를 접한다는 것은 누구에게나 가슴 설레고 흥분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기쁨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세계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과 헌신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교회에 첫 발을 들여놓은 신 분들은 마찬가지로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새로 알게 된 하나님, 친절한 교우들, 편안하고 감동 넘치는 예배 등 모든 것이 가슴을 충성시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고 그렇게 있는 모습은 계속 되면서 실망이 싹트게 됩니다. 따라서 처음 그 상대에 처음 머물러 있던 안기자는 사라지기 합니다. 마치 어금어금 가다니라는 아기가 걸음마를 배우고 마침내 일어선지 다니는 것처럼 말입니다. 성령이 '지혜에 있어서는 장성한 자 되라'고 권하시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기독교의 핵심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오면 누구나 이 메시지를 들읍시다. 그러나 정작 '구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고 물으면 신앙생활을 꽤나 오래 하신 분들도 당황해 하는 것을 봅니다. 따라서 이 시간에는 구원이란 무엇인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에서 구원이란 일상적 의미에서 볼 때 심각한 위험 중 병이나 고풍이나 적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좁게 제한된 곳에서 넓고 다 트인 환경으로 옮겨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격렬한 예로 출애굽을 들 수 있습니다. 애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능하신 손길로 애굽 치하의 속박과 고통과 억압으로부터 탈출하여 자유를 얻게 된 사건을 가리킵니다. 일반적 의미의 구원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구원 성령은 이러한 구원이 우리의 구원자이신

하나님에게서 나온다고 여러 곳에서 고백합니다.

그러나 성령에서 구원이라고 할 때는 도덕적이며 영적인 의미를 강하게 지닙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이 땅에 온 목적을 가리켜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함이라고 친히 말씀하셨습니다(눅 19:9). 이것은 구원이 예수님의 인격 및 사역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말해 줍니다.

신약 성경은 구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십자가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예수의 죽음을 통해 우리 인간은 죄와 사탄의 권세로부터 구제되었기 때문입니다. 복음서 저자에 의하면, 구원은 예수님의 죽음으로 믿음의 자녀의 자녀가 되고 중생을 통해 하나님께 자녀로 들어가는 것(요 1:12-13, 3:5, 14)이라고 말합니다. 한편 사도 바울에 의하면, 죽음으로 인간을 구원하고서 부활하심으로 그들을 의롭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의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 기쁨이 주시는 은혜가 바로 구원이라고 말합니다(골 3:21 이하).

한 마디로 구원은 죄와 사탄의 아들의 권세로부터의 해방과 자유입니다. 예수님은 영적인 면에서 사탄의 왕국이라고 해석될 수 있는 애굽에서 탈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홍해를 가르쳤던 우리의 구원자이신 하나님처럼, 우리 인간을 죄와 사탄의 아들의 권세로부터 구원하신 예수주이십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 다'는 교회의 메시지는 이런 각도에서 이해되어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구원의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우리를 죄와 사탄의 어둠의 권세로부터 구원하셨을까요? 이에 대해서는 다음에 살펴보겠습니다. (퍼지실)



글·그림 / 장대선

새가족을 소개합니다

'이제현♥최수경' 예비부부를 소개합니다



기독교인이 아닌 자매와 교제하는 것을 어머니께서 어찌 생각하실까 해서 말씀을 돌렸습니다. 어머니 김경순 집사는 아들이 사귀는 자매가 있는 데도 말을 쉽게 꺼지지 못해서 하는 것을 보고 안타까워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어머니는 그리스도를 믿었다고 합시다. 아들이 예루살렘 4월 25일입니다. 새겨주면 집회에 오는 자매는 아직 모든 것들을 그의 구주로, 하나님 자녀됨과 구원에 대해 확신

**‘박진수’ 성도를 소개합니다**



초등 5학년때 친구들을  
따라서 참여한 교회 여름  
성경학교에서 성경퀴즈를  
잘해서 상을 탔던 일이 교  
회의 첫만남이었지만 그  
후 성인이 되어 직장 동료  
의 권유로 성당에 가서 영  
예까지 받았다고 합니다. 본  
에 오게 된 동기는 새가족  
집사와의 대화 속에서 많  
이 이루어졌고 교회에 등록했  
고 있습니다.

## 인도자의 편지

## “하나님의 계획하심”

초등학교(4학년때)였을 때, 학교에서 가장 친한 친구를 전도한 적이 있었어요. 친구들은 불신자였었고 그 교에 다니는 걸 탐탁치 않게 여겼지요. 그 뒤로 많은 세월을 우리는 두 사람에 대해 전혀 모르는 채 각자 다른 일에 바쁘게 살 아 왔지요. 그러다가 대학식당 그와의 만남이 있었어요. 이해 동안 서로 떨어져 지내시던 친구의 신앙에 대해 궁금 하게 하니 너무 많았어요. 놀래고도 그 시절 이후로 친구가 대학에서 전통공부들을 하고 있다고 신학과로 전파하여 졸업 한 후 시모도에서 삶을 살아가고 있다더군요. 친구가 천성적으론 무가치 이라는 믿음을 지니게 되었다고 하니 정 말은 예레미야는 말미에는 나모지 않았어요. 그 당시 한 친구에 대한 큰 기대도 계획도 없었거든요. 오직 주님만이 그의 앞을 열어갈 거겠던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하신 삶과도 놀랍습니다.

그일 이후 나에게 계획하신 하나님의 전도 계획이 있었어요. 바로 당신에 대한 계획이었지요. 그 당시 당신에 대한 계획은 아무것도 없었지만 놀랍도록 은혜로우신 주님의 계획은 당신을 저의 배우자로 세우시는 것이었으니 지금 생각해 보면 얼마나 아슬아슬한 선택과 갈등의 상황이었는지.

우리가 작년 4월에 결혼을 올리니까지 5개월 동안 주변의 많은 분들은 관심과 사랑을 후원을 아끼지 않으셨고 그 가운데 무엇보다도 담담히 제 마음을 잡아주시고 그 든든한 은혜가 아니었다면 틀림없이 첫 단숨을 포기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 담담한 마음에 대한 유일한 대가였어야 할 신앙도 믿고 교회에 대해서도 언론의 부정적인 보도 말고는 들어본 일이 없었던 당신에 지금에 이르니까지 당신을 소생시킨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여보, 지난날에 제게 내신 사랑과 헌금을 어떻게 여겨진 일 많지요? 그 때 혼자 속으로 당신을 위해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말아야? 당신의 신앙성숙이 곧 우리 가정의 성숙인 것을 저는 분명히 확신하고 있어요. 3개월된 우리 아기의 양육도 당신의 신앙 가운데 있다가 사물을 기뻐하세요. 당신과 결혼이 나와 하나님과의 중보의 결과라면 우리아이의 우리와 부모님, 그리고 첫친부님 지체들의 중보의 결과라는 것도요.

여보,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시는대로 계획하시는대로 살기로  
해요. 주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가정을 위해, 열심히 기도하  
면서 오직 주님의 지혜와 긍휼만 바라봐요.

초등학교 시절 전도했던 그 친구의 지금의 모습처럼, 먼 훗날 우리 가정도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참 하나님의 가정이 될 것을 바라며 그 은혜의 계획하심을 소망합니다.

당신의 기도 후원자 헌미가





내 입의 찬송

“이 몸의 소망 무엔가”

조 옥 경(집사, 장년부)



어느 때부터인가 나는 내 생활의 일부로 찬송을 즐겨 부르게 되었다. 그것은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기쁨함 그리고 기쁨이 충만함의 표현이었고 또한 나를 정화시켜주는 눈물이 되기도 했다. 찬송에서 얻어지는 깊은 감사와 은혜는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을 정도로 심오하다. 내 안에 각정해서 억

사하시는, 날마다 나에게 깨우침과 주님의 그 아름다운 말씀의 세계로 인도되어 가는 길목 어찌런 항상 찬송이 준비되어 있었다. 그것은 통성하고도 절박하고 감미로우면서도 좀더 주님께 가까이 이끄는 힘이 있다. 나는 평소 가사에서 많은 은혜를 받은 한다. 우리의 총체적인 삶속에서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아름다움이 나타나길 바라며 또한 찬송을 통한 성도의 교제는 더없이 뜨겁고 힘이 있고 원동력이 있어 우리 마음에 사랑의 원천이 되며 단비가 되기도 한다. 항상 주님과 교동이 막혔을 때 찬송으로 마음을 열자. 또한 이웃과의 관계가 두절됐을 때 찬송으로 입을 열어 먼저 두드리는 자가 되어보자, 하나님

이 기뻐하시는 자가 될 것이다. 우리의 생활이 말씀과 기도와 찬송으로 이루어질 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실 것이다. 내가 평소 소망하는 찬송을 적어본다. “이 몸의 소망 무엔가 우리 주 예수님일세 우리 주 예수님에의 믿을 이 어주 없다 온전한 반석이니 그 위에 내가 서리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이 찬송을 부르며 다스금 나에게에는 예수밖에 없다는 다짐을 해본다.

찬송가 539장은 1834년 영국 침례교회 에드워드 모우트 목사(1797-1874)가 쓴 찬송이다. “소망”은 삶의 목표일 뿐만 아니라 신앙의 대상이다. 찬송시인은 소망을 세상에 두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과 의 그리고 그의 이름에 둔다고 했다. 우리가 돈 잘 벌고, 명예얻고, 출세하기 위하여 예수 믿는다고 하면 참으로 불쌍한 사람이다. 물론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지만 우리의 소망을 하늘에 두고 주님의 분부대로 행할 때 부귀로 얻어지는 부산물이자 그것이 결코 목적이 되거나 소망이 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대약부 겨울수련회 중의 명에를 메지 말라

황 정 연(대학부)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중의 명에를 메지 말라”(갈라디아서 5:1).

수련회를 보내면서 가장 마음 깊숙이 파고든 생각은 ‘자유를 주셨으니 중의 명에를 메지 말라’는 주제 말씀이다. 그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무언가 해야 한다는 압박감에서 몸을 혹사시키며 여러가지 일들을 하고 또 그 일들을 통해 기쁨을 느끼기보다는 또한 만족감과 성취감을 느끼면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의라면서 금식과 헌금을 자랑했던 일이나 내가 교회에서 봉사를 많이 하는 사람들을 많이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 다들 바 없음을 깨닫게 되었다. 개회예배부터 공중예배 후인 그리고 저녁 부흥회까지 믿음으로 의를 다함 받은 나를 보지 못하고 무언가 업메이고 놀린 영혼으로 그렇게 지내왔던 것이 가슴 아왔다. 무미진조한 신앙생활 그 얼마나 슬픈 일인가?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죄된 본성과 여러가지 세속된 행위에 대해 질질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내게 자유를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해서 나아가갈 수 있는 힘을 얻었다. 매번 수련회를 통해서 나의 상황과 나의 사고들 속에 깊이 관제하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심에 감사하고 2박3일이라는 짧은 기간 중 은혜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음에 찬양한다. 이제 더 이상 나의 삶에 매여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살게 되길 소원한다.

사랑하는 고 이승철 장로님을 추모하며

오늘 당산을 사랑하는 동료장로님들과 고역자, 성도들이 당신의 믿음과 눈물과 정성이 배어 있는 교회들에 모여 말할 수 없는 안타까움과 슬픔을 가지고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잠시 잠깐 지나가는 그나데 인생길 걷는 동안, 헛된 영화를 추구하며 사는 사람들이 많건만 장로님께서는 그렇게도 아람답게 하나님과의 영광과 예수님의 존귀함을 드러내기 위해 사셨고요. 안개와 같이 저 시라질 인생길 걷는 동안, 헛된 일을 하던 사는 사람들이 많건만 장로님께서는 그렇게도 의연하게 주님의 일을 감당하며 사셨고요. 들의 풀과 같이 마르고 꽃과 같이 시들어 버릴 인생길 걷는 동안, 육체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헛된 싸움하며 사는 사람들이 많건만 장로님께서는 그렇게도 겸대하게 신한 싸움 다 싸우며 사셨고요. 지금도 카메라를 목에 걸고 교회 뜰 이곳 저곳을 뛰어 다니시던 장로님의 모습이 눈에 선한데, 돌연 우리의 길을 떠나시더니 이제 뎀얼입니까? 언제나 인자하신 성품으로 친절을 베푸시고 따뜻한 미소로 성도들의 마음을 포근하게 감싸 주셨던 장로님! 그 자애로운 모습을 이 명위에서 다시 볼 수 없으니 안타까운 마음 금할 길 없습니다. 교회 절기와 행사마다 본당 뜰에 걸려 있는 게시판을 정성껏 만드시고, 제직 사전집을 발간하기 위해 그 많은 제직들의 사전을 손수 찍으면서도 짜증 한번 내지 않으시던 그 사랑, 잊을 수 없습니다. 장로님의 모습을 정말 이제는 사진으로밖에 볼 수 없다! 복받쳐 오르는 인간적 슬픔과 아쉬움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얼마 전, 고 조현명 장로님과 고병욱 장로님이 가셨을 때도 그 후한 추위 속에서도 활영을 입하셨던 모습이 생생한데 이렇게 빨리 장로님을 보내게 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불편한 몸을 이끌고 전도 현장에 서서 입하셨던 장로님! 가칠품 십자가장 집중회에서 가파른 언덕을 오르며 차서 혁학하시면서도 사명을 감당하셨던 장로님의 모습이 기억납니다. 수현명의 젊은 이가 세례받고 거듭나는 눈산 훈련소 전종 세례식 현장에서 힘드신 가운데서 기쁨으로 입하셨던 장로님의 모습도 떠오릅니다. 이런 장로님의 모습을 이 세상 사는 동안 다시는 볼 수 없으니 이제 뎀얼입니까? 믿음과 눈물이 배어 있는 홍보실을 지날 때마다 장로님의 봉사의 숨결이 계속 느껴질 것입니다. 그러나 장로님! 우리는 이제 슬픔 가운데만 머물러 있지 않고 장로님처럼 죽도록 충성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재림하는 그 때, 장로님께서 잠에서 깨어나 부활의 영광에 동참케 되어 우리와 다시 만나게 될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순간, 이런양 예수님 곁에서 생명의 면류관을 받아 쓰고, 영생의 나라로 가신 장로님을 기쁨으로 보내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들도 장로님의 뒤를 따라 가겠습니다. 남기고 가신 김자희 권사님과 사랑하시던 아들, 우리들이 사랑으로 보살피겠습니다. 이승철 장로님! 안녕히 가십시오. 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소서!



중등2부 겨울수련회 말씀과 촛불로 어우러진 십자가의 사랑

나 성 애(집사, 중등2부 교사)



지난 1월 26일부터 28일까지 2박3일 동안 중등2부 겨울 수련회가 흥원기도원에서 실시되었습니다. ‘순종하는 믿음, 실천하는 신앙’을 표어로 열린일 목사님과 모든 교사가 하나되어 사도행전을 통하여 만나게 되는 코신 동령의 성령하나님을 나의 사랑의 하나님으로 만나게 되기를 소망하며 직장을 제쳐놓은 선생님들의 수고 속에 시작되었습니다. “이곳은 제3포스트, 성령강림 포스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약속하신대로 성령하나님으로 우리 안에 와 계십니다.” 영화 10도를 오르내리는 매서운 추위 속에 그것도 잠깐만 발 깊은 산속에 마련된 8개의 포스트를 돌면서 체험하는 성령하나님은 분명 우리 친구들의 장난기 속에서 함께 하셨으리라. 이 촛불이 이 마음을 밝히기 위해서 많았어 죽어가는 것처럼 어두웠던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 위에서 이 헌거투의 양초처럼... 우리 모두의 촛불로 아람답게 그 모습을 드러낸 십자가는 우리 모두의 마음에 영원토록 아름다운 그 빛을 발하며 우리 모두를 따뜻하게 감싸주리라. 선생님의 준비된 감동 어린 말씀과 촛불로 어우러진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모두의 생활 현장에까지 깊숙이 들어오시리라.



## 지체들 소식

## 영아부

## 생명책에 기록된 아기들

영아부에 7명의 아기가 엄마 품에 안겨 찾아왔다. 이제 태어난 지 한달된 아기, 등록하자마자 출업해야 될 만큼 자란 아기 등, 주일 전 토요일에는 설날인데 새친구가 많이 등록되었다. 생 각지도 못한 기쁜 일이다. 전도사님 기도중에 아기들이 영아부에 이름이 기록될과 동시에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기를 간절히 원하며 모두 아멘이다. 하나님! 우리의 아기들이 평생에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고백하며 가정과 사회와 나라에 기동되는 쪽 있어야 하는 사람으로 자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을 늘 묵상하며 살기를 원하며 오늘도 순간순간 '나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사람으로 자라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송해경 통신원)

## 사랑부

## 28-29일에 겨울성경학교

초등부 예배는 안내 선생들의 따뜻한 환영과 함께 예배전 찬양을 힘차게 부르며 시작된다. 송원식 전도사님의 안내를기 쉬운 성경말씀, 설교를 통하여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점점 자라가는 어린이들이 되어가고 있다. 분반 성경공부 이해를 돕기 위한 시청각 교육시간은 매우 기대되는 시간이기도 하다.

28일(월)과 29일(화)양일간 겨울성경학교가 문을 연다. 예년과 달리 기대되는 것은 분반 성경공부시간인 꿈의 시간이다. 선생님의 일방적인 얘기를 듣는 것이 아니라 간식을 먹으면서 게임을 하기도 하고 노래도 부르며 진행하는데 어린이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요구되는 꿈의 시간이 벌써부터 가슴설레이며 기다려진다. 29일에는 겨울성경학교를 위한 리허설이 있다.

(성향록 통신원)

## 장년2부

## 50대 성도님들 다 모입니다

새천년을 맞으며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께"를 시작하는 신약성서의 처음이요 마태복음의 첫절인 예년의 대한 성경공부를 시작했습니다. 박정환 목사님의 특유한 은혜스러운 음성과 탁월한 신앙 지도력에 많은 50대 성도들이 장년2부로 모여 열심히 성경공부를 하며 깊이 있게 믿음을 키워가는 모습이 참 아름답습니다.

이창호 부장 장로님은 금년에 부임하자 은혜스러운 부서, 부흥하는 부서를 만들기 위해 50대 성도들이 다 모이자고 의치며 해당연령의 등록 고인 명단을 가져오셨습니다. 이분들을 믿임교사 47명에 나누어 헌신적으로 인도하고 있는 데 벌써 매주일 많은 신임회원이 등록하고 있으니 모두 기뻐하며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이제 우리 교사님들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삼천명 회원 확보를 위해 기도하며 방한할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며 은혜스럽게 친교하며 성숙한 성도로서의 삶을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김희장교는 교육관 31호이고 예배시간은 주일 12시 15분부터입니다. (최지은 통신원)

## 영어예배부

## "영어예배부 오세요"

충헌 영어예배부는 세계 여러 나라 사람들과 함께 주님께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아울러 충헌복자님 지화1층에서 하는 영어 성경공부에도 참석해서서 교제속에서 주님께 영광드립니다. (육주원 통신원)

## 나를 바꾼 한마디

## "침묵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

우 명하 (대학부 교사)

11년전, 대학에 진학하면서 곧바로 정하게 된 세상 가치관과 문화의 도전 속에서 나는 심각한 혼란 속에 빠졌고, 은연중에 홀로하고 여겼던 나의 신앙이 얼마나 빈약한 기반 위에 서 있는 것이었으며 나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얼마나 미약한 것인지를 절절히 깨닫게 되었다. 심각한 절망감 속에서 나는 도전하듯이 하나님을 찾았다. "당신이 살아 계시다면 나를 만나달라"고 이런 집념은 기도를 늘 절박한 마음으로 외쳤지만 아무런 응답이 없이 그런 상태는 약 1년동안 지속되었다. 이 교회, 저 교회를 떠돌아다니다가 충헌교회 대학부에 오던 첫날, 대학부 주보 앞면에는 '침묵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의 짧은 글이 실려 있었다.

"우리는 우리가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구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가 구하는 것들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준비하게 하신다. 결국 하나님의 침묵은 오래가지 않고 그분은 우리를 향하신 더 좋은 계획으로 응답하신다"는 요지의 글이었다. 이 글을 통해 나는 큰 위로를 얻었고, 이후 나의 모든 고민과 혼란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응답되는 놀라운 경험이 지속되었다. 절망 속에서 나는 하나님을 찾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선하신 계획으로 나를 만나고 계시고 나를 단단하고 계셨음을 나중에서 알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였고 그들이 말을 마칠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사 65:24)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하...



## 교실

## 교실

월요일 아침.

"이 엄청난 쓰레기가 다 이에서 온 겁니까?"

"여저 각 부서에서 버린 것들입니다."

"매주 이렇게 많은 쓰레기가 나오니까?"

"그럼요 걱정이에요, 원가 대책이 있어야겠어요."



주말마다 각 부서에서 나뉘는 쓰레기가 실로 엄청나다. 적다남은 음식 찌꺼기들, 폐휴지들, 멀쩡한 이면지들, 온갖 잡종사나들...

이 쓰레기대미에도 우리들의 신앙수준이 고스란히 배어있다고 말한다면 지나친 과장일까? 각부서에서는 좀더 근신하여 알뜰한 쓰레기 처치를 위해 책임있는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다. 이면지와 박스, 패트병 등은 분리수거하고, 가능한 한 음식 찌꺼기는 만들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 운동장

## 에

다부는 학

생반 예배후 게임, 성경퀴즈, 찬양 배우기 등 여러 가지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특별활동시간을 갖는다. 수화로 이루어지는 게임 진행중엔 학생들의 열연 수화동작들과 열성없이 침묵을 깨트려다니는 웃음소리에서 한껏 고조된 즐거움을 감강할 수 있었다. 게임을 마친 후 담당전도사님의 수화기도에 눈뜬 채로 함께가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 실

로말함당다는 수

요일 2부예배후 호젓한 분당 지하 호수나물에서 예배때와 다름없는 열심으로 찬양곡을 연습한다. 연습을 마친 후 대원들은 동글게 원을 지어 손을 잡고 서서 다시 하나님을 찬양하며 서로의 사물을 확인하는 시간을 갖는다. 수줍어하는 이들의 손발이 전달되어 오기도 하고, 또 두사람씩 '포옹해야 하는' 순간에는 쑥스러워하면서 모두들 사랑 표현에 적극적...



## 대학

부는 토요일

오후 3시30분

부터 집회를 시작, 인도록 그룹

경공부를 한다. 식

이 한창 왕성할 때인 400명

에 달하는 학생들의 저녁식사를 준비하는 대학부 교사들의 분주함으로 매주 토요일 오후 2시나를 주장은 후끈 메우는 오즈를 학생들이 선호하는 떡볶이, 카레라이스 등으로 다양하다. 지난 5월 설에는 '떡국'도 먹고... 학생들을 양육하는 교사들의 토요일 수고를 조금이라도 덜어줄 손길이 아쉽다.



